

부산지역 3·1운동 연구 성과와 전망*

강대민**

| 목 차 |

- I. 서론
- II. 부산지역 3·1운동의 연구 성과
- III. 부산지역 3·1운동의 연구 전망
- IV. 결론을 대신하여
 - 3·1운동과 건국절 논쟁의 재인식

I. 서론

부산은 일제 강점기 시대, 일제의 침략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일제는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을 강제 개항시키면서 왜관(倭館)이 있었던 부산을 조선 침략의 교두보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의 중심지는 동래(東萊)와 구포(龜浦)에서 부산항(釜山港)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상의 변화를 거치는 가운데 부산의 거주지는 재(在)부산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항 근역과 구 동래부(東萊府)를 중심으로 하는 지

* 부산시 주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2018. 10.30.) 발표원고를 수정한 것임

** 경성대학교 사학과 교수 / dm kang@ks.ac.kr

역으로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일제 강점기 부산부민(釜山府民)의 성격을 규정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 부산의 재편은 일제의 침략,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부민의 주체적 노력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일제의 요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부산항의 변천 역시 그러했었다. 1910년대 이후 개축되었던 제1부두와 제2부두는 관부연락선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중요 시설로서, 2만 톤급 규모의 대형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는 국제적 규모의 부두시설이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와 대륙 침략을 위한 중요 기반 시설로 사용되었던 점은 부산의 변화가 일제의 침략적 요구에 의해 타율적으로 진행되었던 실례(實例)가 되었다.¹⁾

부산부민들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조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저항하였다.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하였던 일제는 부산에 부산이사청(釜山理事廳)을 만들었다가, 1910년 부산부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정하였다. 그리고 1914년 4월 1일 전면적인 행정개편을 시행하여, 기존의 동리 중심의 지방행정조직을 면(面) 위주로 바꾸었다. 이는 전통 지역 사회의 기저를 강제로 재조정하여 식민지 통치체제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일본 자본과 지배 영역의 확대에 바탕을 둔 것이었으며, 이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조선인 노동자와 중소 지주의 피해 위에 성립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구 동래부에 근거를 둔 부산부민의 저항은 학생층과 민족적 부르주아층 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제에게 강제적으로 병탄 당했던 1910년 당시 부산상업학교 학생 변상태(卞相泰)·최기택(崔基澤) 등 6인은 대봉회(大鵬會)를 조직하였고, 1915년에는 같은 학교의 오택(吳澤)과 박재혁(朴載赫) 등 10여 명이 구세단(救世團)을 결성하기도

1) 김승, 『일제강점기 부산항 연구 성과와 과제』, 『향도부산』 29, 2013, 2쪽.

하였다.²⁾ 민족부르주아 일부도 대동청년단(大東靑年團)을 창설³⁾하거나,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回復團)에 참여함으로써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대동청년단은 결성 당시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독자적 세력을 구축한 것이 아니었으나, 1910년대 중후반 이후 안희제(安熙濟)·윤병호(尹炳浩)·최완(崔浣) 등이 관여하였던 백산무역주식회사(白山貿易株式會社)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⁴⁾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바탕 위에서 성장해왔던 부산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그 저항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II. 부산지역 3·1운동의 연구 성과

부산지역의 3·1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고종 인산일에 참여하였다가 돌아온 학생들은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고, 이것을 부산진 일신여학교에서 등사하여 시위를 준비하였다. 비록 경찰의 감시에 의해 무산되었으나 부산상업학교에서도 조직적인 시위를 계획하였다.

1919년 3월 13일 동래고등보통학교의 시위를 계기로 부산지역의 3·1운동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⁵⁾ 그리고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2) 오미일, 「1910~1920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 양상과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항도부산』 12, 1995, 73쪽.

3) 신민회에 참여했던 박중화·남형우·안희제 등을 중심으로 하였던 해당단체는 영남지역 최초의 비밀결사단체로서, 일제하 전 시기에 걸쳐 노출되지 않고 활동하였던 조직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강대민, 「안희제의 대동청년단 활동」, 『경성대학교 논문집』 18-2, 1997, 76쪽. 그런데 현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전의 디지털부산문화대전이나 디지털양산문화대전에서는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4) 오미일, 앞의 논문, 1995, 73쪽.

5) 삼일동지회, 『부산경남삼일운동사』, 1979, 58쪽.

걸쳐 동래시장에서 범어사의 명정학교와 지방학림의 학생과 군중이 합세한 시위가 진행되었다. 또한 구포에서는 3월 29일 장날을 이용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4월 5일에는 기장읍에서의 3·1운동이 이어졌다. 이날 참여한 인원만 해도 1,000 여 명이 되었고, 이 시위는 장안·일광·정관면에서의 시위로 이어졌다. 4월 10일에는 명지의 동명학교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외에도 부산상업학교, 부산진보통학교, 영도 옥성학교 등에서 만세운동을 이어 나갔었다. 당시 부산지역에서 진행되었던 3·1운동은 그 참여 인원과 시위 횟수에 있어 경기도와 황해도를 이어 많았었다. 특히 사상자와 관공서 파괴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는 당시 부산지역의 3·1운동이 격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⁶⁾

이상의 3·1운동은 이후 부산지역의 민족해방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19년만 하더라도 백신영(白信永)이 대한민국의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를 통해 독립투사 원호사업을 추진하였고, 정인찬(鄭仁贊)·김소룡(金小龍)·한덕술(韓德述) 등 상해 임정의 경남지부 간부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였다. 또한 10월에는 최재호(崔在鎬)·이낙영(李樂永)·김수홍(金守弘)·박덕술(朴德術)·박영신(朴永信) 등이 흥한민회단(興韓民會團)을 통해 활동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1920년 오영대(吳英大)·양춘경(梁春景)·김영선(金永先) 등의 독립운동 자금 모집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1920년 9월에는 동래고등보통학교에서 구세단을 결성하였던 박재혁·오택 등이 의열단(義烈團)의 일원으로서 부산경찰서를 폭파하는 일대 쟁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임용길(任龍吉)의 의거가 이어짐으로써 일제에 협력하였던 친일부역세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하였다.⁷⁾

6) 강대민, 「일제하 부산지역의 항일민족해방운동의 기초」, 『문화전통논집』 7, 1999, 74쪽.

이처럼 부산지역에서의 3·1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소략하다.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의 3·1운동에 대한 단행본으로는 삼일동지회에서 편찬한 『부산경남삼일운동사』(1979)가 그 시원을 연다.⁸⁾ 이 책은 발문(跋文)에서 “투쟁 당사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과 각 선열의 자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아들여 좀 과장된 것이 있다하더라도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편저하였다.”⁹⁾ 라고 밝혔을 만큼, 학문적으로 서술되기보다는 일종의 기록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책이었다. 따라서 그 내용의 오류는 물론, 참여자 또는 그 자손들의 열망 또는 왜곡된 기억이 상당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부산·경남 3·1운동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증언을 최초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후 강대민은 『부산지역 학생운동사』(2003)¹⁰⁾에서 학생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3·1운동에 대하여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책에서 강대민은 부산지역의 각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3·1운동의 진행과 이에 대한 일제의 탄압을 정리하였다. 더불어 이것이 이후 부산지역의 민족해방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강대민은 『근대 부산의 민족운동』(2008)¹¹⁾을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강대민은 부산지역의 항일 운동이 허전(許傳) 문도(門徒)의 의병운동을 비롯하여, 백산 안희제, 소해 장건상(張建相), 일봉 김대지(金大池), 박차정(朴次貞) 등의 인물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이 가운데 3·1운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였다. 무엇보다 3·1운동이 지난 2년 후 부산부두노동자총파업을 연구함으로써, 이후 부

7) 오미일, 앞의 논문, 1995, 83~84쪽.

8) 삼일동지회, 앞의 책, 1979.

9) 삼일동지회, 위의 책, 1979, 3쪽.

10) 강대민, 『부산지역 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2003.

11) 강대민, 『근대 부산의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산지역의 노동운동이 3·1운동의 계승과 발전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또한 해당 분야의 연구논문으로는 강대민의 『일제하 부산지역의 항일민족해방운동의 기초』(1999)¹²⁾, 강대민·도업의 『범어사 3.1운동의 재조명』(2010)¹³⁾, 김상환의 『경상남도 3.1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2011)¹⁴⁾, 박철규의 『일제강점기 사회운동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2007)¹⁵⁾, 오미일의 『1910~1920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 양상과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1995)¹⁶⁾ 등이 존재한다. 우선 강대민은 『일제하 부산지역의 항일민족해방운동의 기초』를 통하여 부산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이, 개항기 이후 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제의 침략에 대해 저항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특히 현재 부산 중구의 동광동·광복동·창선동·신창동 등이 일본의 시가지를 모델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이곳에 정치·경제의 중요 시설들을 배치함으로써 일제의 침략 의도에 기초한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이 가운데에서 부산부민들은 일제를 중심으로 한 부산의 재편에 대하여 저항하였고, 그 중심에 학생층과 민족 부르주아 일부가 서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강대민은 도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범어사를 중심으로 한 3·1운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범어사 3·1운동의 근원이 한용운의 중앙학립과 동래의 지방학립과 더불어 명정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불교계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이 기존의 불교 사상과 함께 근대사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불교학의 근

12) 강대민, 앞의 논문, 1999.

13) 강대민·이행구(도업), 『범어사 3.1운동의 재조명』, 『대각사상』 14, 2010.

14) 김상환, 『경상남도 3·1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 『지역과 역사』 29, 2011.

15) 박철규, 『일제강점기 사회운동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향도부산』 23, 2007.

16) 오미일, 앞의 논문, 1995.

대적 재구성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구명하였다.¹⁷⁾

김상환은 『경상남도 3·1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을 통하여 부산·경남 지역의 3·1운동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김상환은 부산지역의 만세시위가 부산·동래 지역은 학생들이 주도하여 전개되었으며, 대부분 시위운동으로 그친데 비하여 구포시장 만세시위는 그 주체가 농민·상인·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였음을 구명하였다.¹⁸⁾

박철규는 『일제강점기 사회운동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를 통해, 3·1운동을 비롯한 일제 강점기의 민족해방운동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하여 박철규는 당대의 운동사를 계몽운동과 민족운동, 문화운동, 3·1 독립만세운동, 대중운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대중운동의 하위범주로 노동운동, 청년·학생운동, 여성운동으로 세분화하고, 각 운동과 관련한 논문들을 정리하였다.

오미일은 일제 강점기 부르주아 계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존재 조건을 규정하는 경제구조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민족 문제,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와 태도에서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존재조건을 함께 살피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쓴 『1910~1920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 양상과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를 통하여, 오미일은 부산지역의 부르주아 민족운동이 191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활성화되었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이때 형성되었던 비밀결사운동이 3·1운동 이후 의열운동과 맞물려 활성화되면서 1920년대 중반까지 발전하였다는 것을 밝혔다.¹⁹⁾

이외의 부산지역 3·1운동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변지섭의 『경남독립운동소사 상편』(1966)²⁰⁾, 이용락의 『3·1운동 실록』(1969)²¹⁾, 김대

17) 강대민·이행구(도업), 앞의 논문, 2010, 54쪽.

18) 김상환, 앞의 논문, 2011, 330쪽.

19) 오미일, 앞의 논문, 1995, 115~116쪽.

20) 변지섭, 『경남독립운동소사 상편』, 삼협인쇄사, 1966.

상의 「3·1운동기 부산지방의 독립운동」(1970)²²⁾, 김의환의 『영남 삼일운동사 연구』(1971)²³⁾와 「피 맺힌 부산의 3·1운동 비화」(1974)²⁴⁾, 이원균의 「3·1운동 당시 영남유림의 활동」(1980)²⁵⁾, 채상식의 「한말, 일제시기 범어사의 사회운동」(1991)²⁶⁾, 부산광역시 북구 디지털도서관 간행의 『구포 장터 3·1만세운동』(2003)²⁷⁾ 등이 있었다.²⁸⁾

그런데 이상의 연구 이외에 부산지역의 3·1운동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는 현재 부산에서의 연구 경향이 3·1운동 자체에 대한 구명보다는 그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증명으로 초점이 옮겨간 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부산지역만의 독자적인 경향이 아니라, 전체 3·1운동사 연구의 흐름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독립운동의 원인이 되는 일제의 지배와 관련된 연구로는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통치정책, 통치제도, 통치기구, 통치사업에 관련된 글이 다수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일제가 동화, 군사기지화, 경제 예속화의 목표 하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였고, 근대화·문명화를 내세우며 한국인들을 예속시키려 하였음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그리고 일본시찰단, 상공회의소, 문화재 조사사업, 태형령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의 지배와 통치에 관한 글이 다수 발표된 점을 주목할 만하다.²⁹⁾

21) 이용락, 『3·1운동 실록』, 3·1동지회, 1969.

22) 김대상, 「3·1운동기 부산지방의 독립운동」, 『향토문화』 2, 1970.

23) 김의환, 『영남 삼일운동사 연구』,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1971.

24) 김의환, 「피 맺힌 부산의 3·1운동 비화」, 『해기』 93, 1974.

25) 이원균, 「3·1운동 당시 영남유림의 활동」, 『역사와 세계』 4, 1980.

26) 채상식, 「한말, 일제시기 범어사의 사회운동」, 『한국문화연구』 4, 1991.

27) 부산광역시 북구 디지털도서관, 『구포 장터 3·1만세운동』, 2003.

28) 박철규, 앞의 논문, 2007, 338~339쪽.

29) 윤경로,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2000년대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2010, 26쪽.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역과 관련하여서 김승, 배석만, 최인택, 홍순권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중 김승은 2010년대 이후 주로 일제 강점기 부산지역의 수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³⁰⁾, 배석만은 주로 일 본계 부산기업을 중심으로 당시 부산의 경제계를 연구하였다.³¹⁾ 최인택³²⁾과 홍순권³³⁾은 일제 강점기 재부산 거주 일본인들의 일상생활과 그것에 대한 기억 및 그들의 인구 구성 및 사회계층을 분석하였다. 이 중 최인택의 연구는 기왕의 역사학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두고 인류학적 방법론으로 당대의 역사를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시도는 부산지역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의 당대에 대한 사회적·시대적 인식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Ⅲ. 부산지역 3·1운동 연구의 전망

그렇다면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3·1운동의 연구를 어떻

-
- 30) 김승의 연구 중 수산업과 관련한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승, 「식민지시기 부산지역의 수산물 어획고와 수산업인구 동향」, 『역사와 경계』 99, 2016; 「식민지시기 조선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출(輸出) 동향」, 『역사와 경계』 103, 2017; 「일제 시기 어시장 현황과 어시장 수산물의 유통」, 『역사와 경계』 105, 2017.
- 31) 배석만의 연구 중 2010년대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배석만, 「일제시기 日本硬質陶器株式會社の 기업경영 분석」, 『지역과 역사』 29, 2011; 「1930년대 부산 적기만 매 축 연구」, 『항도부산』 28, 2012; 「부산항 매축업자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기업 활동」, 『한국민족문화』 42, 2012; 「일제말 적기만 추가매축 연구」, 『항도부산』 29, 2013; 「제조일본인기업가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戰後 재기노력과 좌절」, 『한국민족문화』 56, 2015; 「제조일본인자본가 다테이시 요시오(立石良雄) 일가의 기업 활동」, 『한일민족문제연구』 32, 2017.
- 32) 최인택,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생활사 - 경험과 기억의 사례연구 -」, 『역사와 경계』 52, 2004.
- 33) 홍순권,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의 인구와 사회계층 구조」, 『역사와 경계』 51, 2004.

게 진행·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거칠게나마 다음과 같은 전망과 제안을 내어 보고자 한다.

우선 각 지역의 독립운동과 그 주도 인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산지역의 각 구청에서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각 마을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자기 지역의 역사에 대해 시민과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심심치 않게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뚜렷한 방향성을 지니고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 구청장의 개별적 관심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성의 개발을 이루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난맥(亂脈)을 조성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시민들이 모두 관심을 지니고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역사적 사건을 발굴하고 기념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3·1운동은 시민 모두가 기념하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3·1운동의 역사를 되살리고, 이를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되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당대 독립운동단체 구성원들의 실체를 올바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영향에 따라 아직도 일제 강점기하 민족해방운동을 인식하는 데 있어 이념의 잣대를 대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는 행동이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당당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들을 제대로 기억·기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있어, 역사적 사건의 의의에 대해 너무 편향적인 이념적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적 실체를 파

악하기 위해서 독립운동단체와 구성원들의 정치·경제·사회·사상적 기반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단체 및 구성원들의 결성과 참여 계기, 구성원들의 혈연과 학연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들의 역사의식과 정치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공유되었는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것이 3·1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으며, 이후 1920년대 ~ 1940년대의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러한 측면을 좀 더 명확하게 구명하기 위해서 범어사와 일신여학교, 동래고등보통학교, 부산상업학교 등 1910년대 부산에서 이루어졌던 종교 및 학교 집단의 움직임은 좀 더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 중 3·1운동을 전후한 학교 집단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동래고등보통학교의 만세시위운동은 서울의 고종 인산일에 참여하였던 김진원, 백광흠과 동래고등보통학교 1회 졸업생으로 3·1운동 선언문과 격문을 부산으로 전파하였던 곽상훈 등의 활동으로 준비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부산상업학교와 일신여학교와의 연대 속에서 태극기와 인쇄되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었다. 부산진보통학교에서는 교사 홍재문이 학생들을 선도하여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일신여학교는 교사 박시연·주경애의 지도 아래 고등과 김응수·송명진·김반수 등 11명의 학생이 미리 준비했던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기숙사를 나와서 좌천동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범어사 3·1운동을 주도하였던 김법린(金法麟)과 김상헌(金祥憲)은 명정학교와 지방학림과 연계하여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 때 그들은 범어사 청련암으로 잠입하여 명정학교 출신의 유석규와 접촉하였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동래 장날인 1919년 3월 8일에 미리 등사하였던 선언서 5,000매를 배포하여 만세 시위를 벌였으며, 3월 17일에는 김영

규·차상명·김한기·김상기 등이 범어사 학생들과 연대하여 그 다음 날인 3월 18일의 거사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 거사는 한 학생의 밀고로 실패하였으나, 19일 허영호의 주도로 다시 시도되어 수십 명의 명정학교와 지방학림 학생들의 2차에 걸친 만세 시위로 이어졌었다. 이 당시 범어사 3·1운동에 참여하였던 이들은 거의 범어사의 지원으로 해외 유학을 갔거나 또는 승려의 신분으로 포교와 항일운동을 전개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을 했었다. 이들은 이후 조선불교청년회·조선불교유신회·조선불교청년동맹 등에서 활동하며 일제 강점기 친일화되었던 불교계의 개혁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교육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 족적을 남겼다.³⁴⁾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부산지역의 3·1운동을 연구함에 있어 교사와 학생들 간의 연계가 만세 시위에 있어 상당히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범어사의 예에서 보듯 종교계의 지원이 3·1운동은 물론 이후 지역 내 민족해방운동의 전개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함이 사실이다. 강대민의 『부산지역 학생운동사』와 『근대 부산의 민족운동』 등의 선구적 연구가 있었지만, 상기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추후의 연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최인택이 제기하였던 인류학적 방법론 등의 다양한 시각으로 3·1운동을 전후로 한 민중의 기억을 바라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최인택은 일제 강점기의 재부산 일본인들의 삶과 기억, 즉 그들의 라이프스토리((life story))를 라이프 히스토리(life history)의 방법으로 바라볼 것을 제기하였는데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그에 따르면 라이프스토리는 어떤 특정 시간 축(軸) 상의 생활사가 주관적으로 구술된 이야기이며, 인터뷰라고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

34) 강대민·이행구(도업), 앞의 논문, 2010, 67~73쪽.

산된 구술의 자전적 이야기를 말한다. 라이프 히스토리는 뒤의 이야기를 조사자가 시계열 혹은 토픽에 따라 열거를 바꾼다든지, 보조적 자료를 보충하는 등 편집을 거쳐 재구성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라이프 히스토리는 단순한 이야기의 기술이 아닌, 그 작성에서 개재되는 인식론적 범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즉 개개인의 개인적 경험이 사회 혹은 국가라는 집단적 기억 속에 어떤 위치를 점하며, 집단의 공통 경험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었는지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스토리에서 라이프 히스토리로 전개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당대인의 역사적 경험과 인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⁵⁾

상기의 방법론을 역사학의 영역에 바로 원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부산지역 3·1운동에 참여했던 시위자들의 기억과 증언, 재판 기록에서의 구술 등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지금껏 놓쳐왔던 당대 부산 사람들의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 3·1운동과 건국절 논쟁의 재인식

3·1운동에 대한 인식은 단순하게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로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제기되어 지금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광복절 대 건국절 논쟁과도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유영옥의 논문³⁶⁾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 계열의 건국절 주장과 박찬승의 그것³⁷⁾으로 대변되는 광복절을 기념하고자 하는 기왕의

35) 최인택, 앞의 논문, 2004, 111쪽.

36) 유영옥, 「건국절 제정의 상징성과 국민통합」, 『한국보훈논총』 10-4, 2011.

사학계의 논쟁에 있어 3·1운동의 인식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유영옥의 연구에서 보듯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은 3·1운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후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에 이르는 동안의 좌우 대립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지한다면, 1919년 3·1운동이 야말로 민중을 주체로 하는 민족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과 현 대한민국의 기원이 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 또는 시민들에 대한 압제를 타파하고, 그들의 주권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사상임을 되새길 때 더욱 그러하다. 일제의 간악하고도 폭력적인 수탈과 압제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떨쳐버리고 일어났던 민족 전체의 공유 경험과 기억이 바로 3·1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3·1운동은 현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기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한민족이 수용하고 구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명할 때, 3·1운동은 민족사 전체에 있어 하나의 획기적 기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를 명확히 할 때 역사를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에 따라 왜곡하고 난도질하려는 일부의 모략을 막아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견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3·1운동은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억과 기념 속에서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민족적·민중적 투쟁의 역사이자 현실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대민, 『안회제의 대동청년단 활동』, 『경성대학교 논문집』 18-2, 1997.
- _____, 『일제하 부산지역의 항일민족해방운동의 기초』, 『문화전통논집』 7, 1999.
- _____, 『부산지역 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2003.
- 강대민·이행구(도업), 『범어사 3.1운동의 재조명』, 『대각사상』 14, 2010.
- 김상환, 『경상남도 3·1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 『지역과 역사』 29, 2011.
- 김 승, 『일제강점기 부산항 연구 성과와 과제』, 『항도부산』 29, 2013.
- 박찬승,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2012.
- 박철규,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191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56, 2005.
- _____,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의 사회사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9, 2006.
- _____, 『일제강점기 사회운동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항도부산』 23, 2007.
- 배석만, 『일본경질도기주식회사의 경영자료(1908~1944)』, 『항도부산』 26, 2010.
- _____, 『일제시기 日本硬質陶器株式會社の 기업경영 분석』, 『지역과 역사』 29, 2011.
- _____, 『1930년대 부산 적기만 매축 연구』, 『항도부산』 28, 2012.
- _____, 『부산항 매축업자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기업 활동』, 『한국민족문화』 42, 2012.
- _____, 『일제말 적기만 추가매축 연구』, 『항도부산』 29, 2013.
- _____, 『재조일본인기업가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戰後 재기노력과 좌절』, 『한국민족문화』 56, 2015.
- _____, 『재조일본인자본가 다테이시 요시오(立石良雄) 일가의 기업 활동』, 『한일민족문제연구』 32, 2017.
- 삼일동지회, 『부산경남삼일운동사』, 1979.
- 오미일, 『1910~1920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 양상과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항도부산』 12, 1995.
- 유영욱, 『건국절 제정의 상징성과 국민통합』, 『한국보훈논총』 10-4, 2011.
- 윤경로,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2000년대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2010.
- 최인택,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생활사-경험과 기억의 사례연구』, 『역사와 경계』 52, 2004.

16 함도부산 37

홍순권,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의 인구와 사회계층 구조」, 『역사와 경계』
51, 2004.